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 사슬동사

[V_1 +/-어/+ V_2]구조의

영어 번역 유형 분석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곽 지 은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국어 사슬동사

[V_1 +/-어/+ V_2]구조의

영어 번역 유형 분석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곽 지 은

곽지은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6일



주 심 언어학박사 한 지 원 (인)

위 원 언어학박사 John Stonham (인)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목 차

Abstract	iv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4
2.1. 사슬동사	4
2.2. 보조동사	5
III. 번역 패턴 분석	11
3.1. [본동사+/어/+보조동사] 구조의 번역 유형	12
3.1.1. 보조동사가 생략된 경우	14
3.1.2. 보조동사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17
3.1.2.1. 완료상(have+p.p)으로 번역된 경우	17
3.1.2.2. 동사 + 명사로 번역된 경우	20
3.2. [본동사+/어/+본동사] 구조의 번역 유형	22
3.2.1. 단일 동사로 번역된 경우	23
3.2.1.1. 의미의 중심이 되는 동사만 번역된 경우	24
3.2.1.2. 이동 동사가 생략된 경우	25
3.2.1.3. 제 3의 동사로 번역된 경우	27
3.2.2. 동사 + 전치사(부사)로 번역된 경우	28
3.2.2.1. in (into)	29

3.2.2.2. out	30
3.2.2.3. forward	31
3.2.2.4. back	31
3.2.2.5. up	32
3.2.2.6. around	33
3.2.3. 동사 + 명사로 번역된 경우	35
IV. 결론	37
분석자료	39
참고문헌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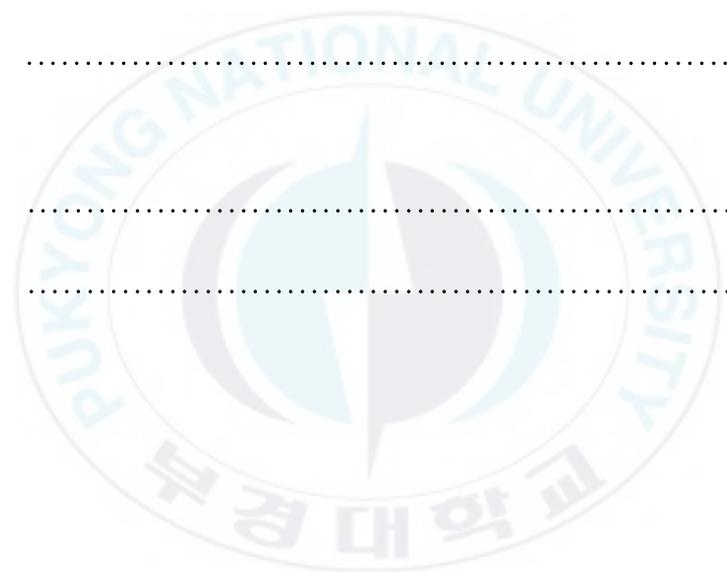


표 목차

<표1> 사슬동사 ‘넘어가다’의 표현에 나타난 고등학생 실험자들의 영어번역 양상	2
<표2> 한국어 보조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들의 의미에 따른 보조동사의 유형	7
<표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구조별 사슬동사의 빈도	11
<표4>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보조동사의 종류와 빈도	12
<표5> [본동사+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에서의 보조동사 번역 여부와 그에 따른 번역유형과 빈도	14
<표6> [본동사+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의 변형유형과 빈도	21

**An analysis of English Translation Patterns of
Structure [V₁ +/-eo/+V₂] of Korean Serial Verbs**

Jieun Gwak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Korean serial verbs and analyze the Korean-English translation patterns of those verbs. For this study, a well known Korean novel, *Our Twisted Hero*(Lee, 1992) and its translation by Kevin O'Rourke were used and 233 sentences including the serial verb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ype 1, main verb + auxiliary verb structure; and Type 2, main verb + main verb structure.

Type 1 showed largely 2 patterns of translation; 'translating only one verb(omission of auxiliary verb)'was the most frequent pattern and the other pattern is 'translation of auxiliary verb with main verbs.' The second pattern of Type 1 was divided into 2 subgroups; 'perfect aspect(have+p.p)', and 'verb+noun structure.' And In Type 2, 'translating only one verb' pattern was also the most dominant, showing different reasons. And like Type 1, 2 other different patterns followed; 'translating into verb+preposition or adverb', and 'translating into verb+noun structure.'

I. 서론

일반적인 초, 중, 고등 교육과정을 거친 한국인 화자들에게는 보통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술어만 쓰일 수 있다는 통념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원어민에게는 자연스럽게 들릴지 모르는 예문 (1)의 동사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의문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 (2)에 나온 일련의 한국어 동사들을 영어로 번역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의 동사만 번역할 것인가, 두 개의 동사 모두 번역할 것인가 등과 같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으리라 예상한다.

- (1) a. [Go] [get] some water.
b. I [went] [see] the doctor.
- (2) a. 참새가 방앗간으로 [날아][간다].
b. 강아지가 신발을 [물고][잡다].
c. 주인공은 두려움에 주저[앉아][버렸다].

하지만 예문 (1)에서의 [go][get], [went][see]등과 같은 영어의 술어부와 (2)에서의 [날아][간다], [물고][잡다], 그리고 [앉아][버렸다]처럼 한국어 술어부에 두 개의 동사가 하나의 동사처럼 이어져 쓰일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가진 동사를 사슬동사(serial verbs)라고 부른다. 또한 위의 예문에서 나타난 한국어와 영어 뿐 아니라 많은 언어에서 이러한 사슬동사가 쓰이고 있다.¹⁾

1) 이영헌(1996)에 따르면 영어의 사슬동사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서아프리카어, 크리브 연안의 크리올 언어, 그리고 중국어나 국어 등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슬동사들의 특성이 각 언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이 영어를 학습 할 때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슬동사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의 패턴을 조사·연구한 이정은(2007)에 따르면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한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표1> 사슬동사 ‘넘어가다’의 표현에 나타난 고등학생 실험자들의
영어번역 양상

	사용형태	학습자 수
학습자들의 사용양상	cross	21
	pass	31
	go cross, go over	2
	go	2
	go pass	1

<표1>은 이정은(2007)에 의해 조사된 사슬동사 ‘넘어가다’의 한영번역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사용형태를 나타내는 것 중 맨 위에 나타난 ‘cross’라는 단어가 올바른 한영 번역의 예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실험자들이 올바른 번역을 한 경우는 실험자 전체 57명 중 21명밖에 되지 않았고, ‘pass’라는 단어를 쓴 학생이 31명, ‘go’를 쓴 학생이 2명, 동사 ‘go’에 ‘cross’와

2) 이정은(2007)은 이동 동사에 관한 학습자들의 사용양상을 연구·분석한 논문이다. 하지만 이동 동사 자체가 [V₁ + /-어/ + V₂]의 사슬동사 구조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 내용을 참조하였다.

‘over’을 붙여 동사+부사 형태를 만든 학생이 각각 1명, 그리고 동사 ‘go’와 ‘pass’를 붙여 ‘go pass’라고 번역한 학생이 1명 있었다. 위 결과가 보여주듯이 한국어 사슬동사의 영어번역에 있어 한국인 화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한영 번역, 특히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 유형 분석을 본 연구의 주제로 삼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슬동사의 특징과 종류를 알아보고 각각의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사슬동사를 조사하고 그러한 사슬동사들의 번역문들을 찾아 그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한영 병렬언어자료는 이문열(1992)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하 ‘영웅’으로 약함)과 그 영역본 Kevin O’Rourke(2007)의 Our Twisted Hero(이하 ‘Hero’로 약함)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한국어 사슬동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슬동사 구조 중 두 번째 동사 자리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보조동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한영 병렬자료에 나타난 사슬동사의 영어번역 유형을 크게 2가지로 나누고 다시 그 안에서의 번역 유형을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서는 한영 번역 유형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Ⅱ. 이론적 배경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한국어의 사슬동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어 사슬동사에 대한 정의 및 그 종류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슬 동사 구조 중 두 번째 자리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보조동사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함께 살펴보자.

2.1. 사슬동사

한국어 사슬동사에 대한 논의는 최현배(1971), 성기철(1972), 이기동(1978), 양인석(1978)등을 시작으로 김석득(1992), 남기심·고영근(1993), 서정수(1996)등이 이들 동사를 복합동사 또는 동사와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진 동사구로 간주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한국어 사슬동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룬 것은 이숙희(1992), 조인희(1993)등이다.³⁾

- (2) a. 참새가 방앗간으로 [날아][간다].
- b. 강아지가 신발을 [물고][갔다].
- c. 주인공은 두려움에 주저[앉아][버렸다].⁴⁾

3) 최현배(1971), 김석득(1992), 남기심·고영근(1993), 서정수(1996)등에서는 V_1 을 본동사로, 그리고 V_2 를 보조용언(조동사)로 간주하여 이들 구조를 동사구(verb phrase)로 분석하였고, Yang, In-seok(1978)등은 이들 구조를 복합동사(compound verb)로 간주하여 V_1 과 V_2 의 각기 독립적 내용어의 의미적 차이를 논의하였으며 조인희(1993), 이숙희(1992), 이영현(1996)등은 이들 구조를 사슬동사(serial verb)로 간주하였고, Kim, Jong-bok and Yang, Yae-Hyung(2003)은 동일한 구조라 할지라도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동사 복합술어(auxiliary verb complex predicate)와 사슬동사 복합술어(serial verb complex predicate)로 구분하고 있다.

4) 앞서 예문 (2)가 서론에 등장하였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본 장에서 다시

이영현(1996)에 따르면 한국어 사슬동사는 두 개 이상의 동사가 결합되었을 때 예문 (2a)와 (2c)에서처럼 [선행동사 + /-어/ + 후행동사] 구조를 갖는 경우와 (2b)에서처럼 [선행동사 + /-고/ + 후행동사] 구조를 갖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다.⁵⁾ 하지만 사슬동사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범주설정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않아 사슬동사에 대한 정확한 구별을 해내기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동사 + /-어/ + 후행동사] 구조를 갖는 사슬동사만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2. 보조동사

본 연구 자료에 나타난 [본동사+보조동사] 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보조동사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의미적 특성에 따른 종류를 알아보자.

보조동사는 조동사, 의존종사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오며 여러 연구를 통해 보조동사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는데, 그 중 남기심·고영근(1993)에서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면서 그 말에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이라고 하였다.⁶⁾ 즉, 본 연구의 대상인 사슬동사 [V₁ + /-어/

제시하였다.

5) 첫 번째 구조를 [V₁ + /-어/ + V₂], 두 번째 구조를 [V₁ + /-고/ + V₂] 로 칭한다.

6) 이희승(1955:84-85)은 ‘제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만 그 위에 있는 동사의 뜻을 도와주는 말’을 ‘조동사’라 하였고, 이승녕(1956)은 ‘본래의 뜻과 달리 점점 별개의 뜻으로 쓰이게 되어 두 동사가 연결될 때 뒤에 붙여 주동사의 뜻을 도

+ V₂] 구조에서 V₂ 에 보조동사가 나타난 경우 그 동사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풀이가 되지 못하고, 본동사에 해당하는 V₁ 을 돕는 역할만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예문과 같이 보조동사가 본동사처럼 자립적으로 쓰이게 되면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 (3) a. 철호는 떠나 버렸다.
 b. 철호는 떠났다.
 c. *철호는 버렸다.

- (4) a. 민구가 집터를 보아 두었다.
 b. 민구가 집터를 보았다.
 c. *민구가 집터를 두었다.

김용석(1983)에 따르면, (3a)의 사슬동사 중 V₁ 에 해당하는 본동사 ‘떠났다’만 나타난 (3b)는 의미가 성립되는 반면 보조동사 V₂ 만 쓰인 (3c)의 경우는 (3a)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 뿐더러 ‘버렸다’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는 비문이 된다. 마찬가지로 예문 (4a)에서 제시하는 ‘집터를 보았다’라는 의미가 본동사인 V₁ 만 남겨 둔 (4b)에서는 성립되는 반면 본동사인 V₁ 을 생략하고 보조동사만 나타낸 (4c)는 (3c)에서와 동일한 이유로 비문이 된다.

그렇다면 위의 예문 (3)과 (4)의 일련의 문장들에 나타난 보조동사의 종류와 유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그 중 이관규(1986)는 보조동사가 가진 의미에 따라 보조동사의 종류를 <표2>와 같이 ‘진행, 완료, 봉사, 시도, 강세, 원망, 지속’으로 분

우는 구실만 하는 동사’를 ‘보조동사’라 하였다. 그리고 최태호(1958)는 ‘거의 동사로서 제 본뜻을 잃었거나 본래 약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만 그 위의 있는 동사의 뜻을 돕고만 있는 동사’를 ‘보조동사’라 하였다.

류하였다. 다음의 표를 바탕으로 분석 자료에 나타난 보조동사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2> 한국어 보조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들의 의미에 따른
보조동사의 유형⁷⁾

유형	선행동사 어미	보조동사의 종류
진행	아	오다, 가다, 나가다
완료	아	내다, 버리다, 먹다, 치우다
봉사	아	주다, 드리다, 바치다
시도	아	보다
강제	아	쌓다, 대다. 빠지다, 제치다, 붙이다
지속	아	놓다, 두다

먼저 ‘진행’의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 중 ‘오다’와 ‘가다’가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 나타난 경우이다.

- (5) a. 사실 그 전 일 년을 거의 아무에게도 저항 받지 않고 그
반을 [지배해][은] 석대에게는 그런 내가 알밋고도 분했
을 것이다.
b. 벌써 30년이 다 [돼] [가지만], 그해 봄에서 가을까지의

7) 이완규(1986)가 제시한 표에서는 선행동사 어미 ‘고’와 그에 따른 보조동사의 종류도 함께 제시하였으나 선행동사 어미 ‘고’는 본 연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에서 제외하였다.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 진다.

예문 (5a)의 예문에서는 V₁ 에 나타난 ‘지배하다’의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져왔음을 나타내는 진행의 보조동사 ‘오다’가 쓰였으며, (5b)에서도 마찬가지로 30년 이라는 시간의 진행을 ‘가다’라는 보조동사로 나타냈다.

‘완료’의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 ‘내다’와 ‘버리다’가 쓰인 경우를 살펴보자.

- (6) a. 담임선생님은 그 모두를 깨끗이 [무시해][**버린**] 것이었다.
다.
b. 그러나 내가 그를 엇비슷한 60명 가운데서 금방 [구분해][**넠**] 수 있었던 것은...

예문 (6)에서는 ‘버리다’와 ‘내다’가 선행동사인 ‘무시하다’와 ‘구분하다’의 동작이 완료되었다는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동사로 쓰였다.

다음은 ‘봉사’의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 ‘주다’와 ‘바치다’가 쓰인 경우이다.

- (7) a. 아이들도 그런 걸 [참아][**주지**] 않는 까닭이었다.
b. 그리고 별로 비겁한 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 없이 운병조의 일을[일러][**바침**]과 아울러 그동안 내가 보고 들은 그 비슷한 사례들을 모조리 얘기했다.

예문 (7a)에 나타난 선행동사 ‘참다’와 (7b)의 ‘이르다’라는 동작에 봉사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동사가 쓰였다. 이러한 ‘봉사’의 의미를 가진 보조동사가 쓰인 경우 해당 문장에 등장 하지는 않으나, 동작주의 행위인 ‘참다’와 ‘이르다’를 통하여 ‘이로움’, 즉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있음을 암시하게 된다.⁸⁾

다음은 ‘시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보다’가 쓰인 경우이다.

- (8) a. 나름대로는 있는 힘과 피를 다 짜내 그런 상태를 [개선해][**보려고**] 애썼다.
b.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실패는 석대의 남다른 통솔력 못지않게 나의 잘못도 큰 원인이 된 듯싶다.

예문 (8)에 나타난 보조동사 ‘보다’가 선행동사 ‘개선하다’와 ‘생각하다’에 ‘시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다음 예문은 ‘강제’의 의미를 가진 보조동사 ‘붙이다’가 쓰인 경우이다.

- (9) 다른 반 담임들은 모두 팔을 [건어][**붙이고**] 나서 청소를 지휘 하고 감독했건만 우리반 담임은 겨우 일만 자신이 나서서 뭉뚱이 나누어주었을 뿐, 검사는 여느 때처럼 석대에게 맡기고 없어져버린 까닭이었다.

(9)에서 본동사로 쓰인 ‘건다’ 만을 써도 충분한 의미전달이 되지만 보조동사 ‘붙이다’를 덧붙여 사슬동사로 나타냄으로써 ‘건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의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 ‘놓다’와 ‘두다’가 쓰인 경우를 살펴보자.

- (10) a. 아이들이 어리석으니까 선생인 내가 [**고쳐**][**놓아야**]

8) 허윤숙(2007)은 봉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행위의 전달이라는 어휘에서 온 것이므로 독립적인 어휘동사의 의미기능인 혜택 또한 문법화 과정을 통해서 보조동사 ‘주다’의 혜택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혜택은 봉사성의 틀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고 구종남(1985)이 제시한 ‘이로움’의 의미기능과 손세모돌이(1991)이 제시한 ‘유익성’도 ‘봉사성’으로 통합 해석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 b. 그때 담임 선생님이 다시 나를 [버려][두고] 반 아이 모
두를 향해 물었다.

예문 (10)에서는 보조동사 ‘놓다’와 ‘두다’를 사용함으로써 고치고 버리는
행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
를 더해주었다.

이상으로 사슬구조의 개념과 함께 사슬동사의 한 요소로 나타나는 보조
동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어
사슬동사 $[V_1 + /-어/ + V_2]$ 구조가 (11)과 (12)에서와 같이 [본동사 + /-
어/ + 보조동사]구조와 [본동사 + /-어/ + 본동사] 두 가지 유형으로 하위
범주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11) 나는 만약 기분이 좋아진 그가 부드럽게 [대해][주면] 내
쪽에서 적당히 그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맞장구를 쳐 내가
생각을 바꾼 걸 넌지시 알릴 참이었다.
- (12) 그 애는 험끔험끔 시험 감독을 나온 딴 반 담임을 훑쳐보
며 방금 말끔히 지운 곳에 얼른 이름을 다 [써][넣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은 엄석대의 것이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아래의 예문 (11)과 (12)에 각각 제시한 1) 본동사
와 보조동사와의 연결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와 2) 본동사와 본동사로 이루
어진 사슬동사로 나누어 빈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번역 유형을 조사·분
석하고자 한다.

Ⅲ. 번역 유형 분석

제 2장에서는 한국어 사슬동사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3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1)본동사와 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와 2)본동사와 본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패턴을 조사하고 그 패턴들에 대한 규칙을 알아본다.

본격적인 번역 유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본동사 + /-어/ + 보조동사]구조의 사슬동사와 [본동사 + /-어/ + 본동사]구조의 사슬동사 빈도를 알아보았다.

<표3>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구조별 사슬동사의 빈도

사슬동사 구조	[본동사 + 보조동사]	[본동사 + 본동사]	합계
빈도	109(51.9%)	101(48.1%)	210(100%)

다음 <표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는 분석 자료에서 발견한 총 233개의 예문 중 109개(51.9%)를 차지하였고 본동사와 본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는 124개(48.1%)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빈도수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 구조의 번역 유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3.1. [본동사 + /-어/ + 보조동사]구조의 번역 유형

분석 자료에 나타난 보조동사들을 조사하고 이를 이관규(1986)가 제시한 보조동사의 의미와 종류에 관한 목록에 대입하여 빈도와 함께 표로 나타내었다. 9)

<표4>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나타난 보조동사의 종류와 빈도

유형	보조동사의 종류	빈도
진행	오다, 가다, 나가다	22
완료	내다, 버리다, 치우다	25
봉사	주다, 바치다	31
시도	보다	14
강제	붙이다	1
지속	놓다, 두다	15

<표4>에 나타난 보조동사들의 번역 패턴을 살펴본 결과 크게 1)보조동사가 생략된 채 본동사의 의미만 번역되는 경우와 2)보조동사가 본동사와 함께 번역되는 경우로 나뉘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3) a. 거기다가 엄석대도 내가 느긋이 다음 해를 준비하도록

9) 이관규(1986)의 보조동사의 의미 유형별 목록은 p.6 <표2>에 제시되었고 분석 자료에 나타난 보조동사의 예문들도 <표2> 이하에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기다려] [주지] 않았다.

b. In addition, Om Sokdae did not [wait] while I prepared at my ease for next year.

(14) a. 벌서고 있는 아이의 손바닥을 몇 차례 호되게 [때려][줌]으로써...

b. he [gave] the offender several hard [slaps] across the palms...

예문 (13a)와 (14a)에서 보조동사 ‘주다’가 동일하게 쓰였다. 하지만 (13b)에서는 보조동사 ‘주다’가 생략되어 본동사의 의미인 ‘wait’로만 번역된 반면, (14b)에서는 비록 동사와 동사의 구조는 아니지만, ‘때리다’라는 동사가 ‘slaps’라는 동일 의미의 명사로 번역되고 보조동사로 쓰인 ‘주다’가 본동사인 ‘give’로 번역되었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보조동사가 쓰인 문장이라도 생략되는 경우와 번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어 보조동사 중 어떤 종류들이 영어로 부호화 되어 나타나며 그들이 보여주는 규칙은 무엇일까? 우선 다음 <표5>를 통하여 어떤 유형으로 보조동사가 번역되는지 살펴본 후 각각의 예문을 통해 각 유형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표5> [본동사+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에서 보조동사 번역
여부와 그에 따른 번역패턴과 빈도

보조동사 번역 여부		빈도	
보조동사 생략		98(89.9%)	
보조동사의 번역	완료상 (have+p.p)	9	11(10.1%)
	동사 + 명사	2	

<표5>에서는 보조동사가 쓰인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 유형이 보조동사가 생략되는 경우와 번역되는 경우로 크게 범주화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번역되는 경우는 다시 1)완료상(have+p.p), 2)동사+명사 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예문을 통하여 보조동사가 생략된 번역유형을 먼저 살펴보고 번역되는 경우의 세부유형에 대하여 차례로 논하기로 한다.

3.1.1. 보조동사가 생략된 경우

<표5>에 나타났듯이 V₂ 자리에 보조동사가 쓰인 사슬동사의 경우 보조동사의 의미는 생략하고 문장의 핵심적 의미인 V₁ 만 영어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15) a. 무언가를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들을 얽고 있는 마지막 굴레를 [풀어][주었다].
b. After a moment's thought, he [freed] them for the last rein that bound them.

보조동사를 포함한 사슬동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주다’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위 예문 a에서 V₁ [풀다]와 V₂ [주다]의 사슬동사인 [풀어주다]의 경우 영어 번역본에서는 V₁ 에 해당하는 단어 [free]로만 번역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다’가 가진 원형 의미인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말,’ 즉 ‘봉사’의 의미를 지닌 보조동사로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경우 생략됨을 알 수 있다.¹⁰⁾

또 다른 보조동사가 쓰인 사슬동사의 예도 살펴보자.

- (16) a. 이름을 다 [써][놓고]야 겨우 여유를 찾은 그 애가 사방을 슬그머니 돌아보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절끔했다.
 b. When he had [written] the name and gained a little respite, he looked quietly around.

예문 (16a)에서는 이관규(1986)가 제시한 보조동사 중 ‘지속,’ 즉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놓다’가 생략되어 (16b)에서는 본동사의 의미인 [written]으로만 번역되었다.

다음은 보조동사 ‘버리다’가 생략된 예문이다.

- (17) a. 아이들이 까닭 없이 적의를 보이며 놀이에 나를 끼워주지 않는 것도, 저희끼리 모여 무엇인가를 재미있게 떠들다가 내가 다가가면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10) 보조동사 ‘주다’가 생략되지 않고 영어로 번역된 경우를 분석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b. It was just the same when they excluded me from their games, showing an unwarranted hostility, or when they set their faces and [shut up] if I approached a group who were gabbling boisterously.

보조동사 ‘버리다’의 사전적 의미는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이는 이관규(1986)가 제시한 보조동사의 의미 중 ‘완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17a)의 본동사 [다물다]만이 [shup up]으로 번역되었다.

한국어 사슬동사의 V_1 이 영어로 의역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V_2 자리에 위치한 동사가 보조동사일 경우 V_2 는 생략된 채 핵심적 의미 전달 동사인 V_1 만 번역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8) a. 그런데도 내가 그 뒤로도 한참이나 더 싸움을 [버티][낸] 걸 돌이켜보면 지금에 와서조차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b. Looking back on it, when I think that I [carried on] the struggle for quite a while even after this, I feel a sense of satisfaction even now.

- (19) a. 석대편이 몇 명을 [집어][주지]만 그래도 언제나 석대편이 우세한 그런 축구 시합이었다.
 b. It was another of those soccer games where Sokdae's team [had a few less players] but always managed to win.

예문 (18a)와 (19a)에 나타난 각각의 한국어 사슬동사 V_1 과 번역된 영어표현의 의미를 비교해보자. 먼저 (18a)에 나타난 [버티다]라는 한국어 동

사가 (18b)에서 [carry on]이라는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어떤 부당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버터내는 상황을 ‘특정한 행위를 계속해나가다’ 라는 의미의 [carry on] 으로 의역한 경우이다. 그리고 (19)a에 나타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상대할 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자기 수준을 낮추어 주거나 그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국어 동사 [접다]가 (19b)에서는 그에 일치하는 동사가 아닌 ‘적은 수의 선수를 가졌다’라는 의미로 의역되었다. 그리고 ‘완료’와 ‘봉사’의 의미를 각각 지닌 보조동사 ‘내다’와 ‘주다’는 앞선 예문 (15b)와 (16b)에서처럼 번역문에서는 생략되었다. (18b)와 (19b)의 예문을 통하여 한국어 보조동사는 본동사로 쓰인 V_1 의 직역 혹은 의역 여부에 상관없이 생략됨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보조동사 V_2 에 해당하는 한국어 보조동사가 영어로 부호화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89.9%)임을 발견하였으나 모든 경우에서 보조동사가 생략되어 번역되는 것이 아님을 나머지 10.1%에 해당하는 번역 유형이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보조동사들이 어떤 이유에서 번역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3.1.2. 보조동사 번역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표5>에서 언급 했듯이 보조동사가 생략되지 않고 번역된 경우는 1)완료상 (have+p.p) 2) 동사+명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문들을 통하여 각 유형을 분석해보자.

3.1.2.1. 완료상(have + p.p)으로 번역되는 경우

완료상 have + p.p는 다른 사슬동사들의 경우와는 달리 어휘적 요소로의 번역 이라기보다는 문법적 장치를 통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완료

상(have + p.p)의 형태로 번역되는 경우는 한국어 사슬동사의 V₂ 자리에 위치한 보조동사의 종류가 ‘오다’와 ‘가다, 그리고 ‘보다’ 세 가지 로 나타난 경우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0) a. 사실 그 전 일 년을 거의 아무에게도 저항 받지 않고 그 반을 [지배 해][운] 석대에게는 그런 내가 알뎁고도 분했을 것이다.

b. Since Sokdae [had run] the class for the last year with little or no opposition, I must have appeared both provoking and vexing.

(21) a. 나는 2년째 이 반 담임을 [맡아][왔지만] 아직 이런 일은 없었어.

b. I've had] this class for two years, W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before.

위의 예문 (20a)과 (21a)모두 한국어 사슬동사의 V₂ 자리에 보조동사인 ‘오다’가 사용되었고 두 가지 예문 다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완료상의 형태인 [have + p.p] 로 나타났다. 한국어 보조동사 ‘오다’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즉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됨을 나타내는 의미이다. 여기에 한국인 화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완료상의 의미 중 ‘계속’의 의미가 보조동사 ‘오다’와 부호화 되어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¹¹⁾

11) Jespersen은 완료형은 계속(e.g.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1933. p. 241), 결과(e.g. *He had forgotten all about it.* 1931. p. 361), 반복(1931. p. 70)의 의미로, Zandvoort(1932. pp. 61)는 계속, 결과와 경험이란 의미로, Curme(1931, p. 358-360)은 현재 순간에 완료된 행동(e.g. *I have just finished my work*)이거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행동으로 구분한다. 반면, Comrie(1978. pp. 56-59)

이어서 보조동사 ‘가다’의 경우를 살펴보자.

- (22) a. 벌써 30년이 다 [돼] [가지만], 그해 봄에서 가을까지의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진다.
- b. It'[s been] nearly thirty years already, but whenever I look back on that lonely, difficult fight, which continued from spring of that year through the fall, I become as desolate and gloomy as I was at the time.

한국어 보조동사 ‘가다’의 의미는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는 한국어 보조동사 ‘오다’의 의미와 일치한다. 예문 (22a)에서는 과거의 한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슬동사 [돼 가다]가 계속적 의미의 완료상 [have been]으로 부호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계속적 의미의 완료상이 아닌 다른 의미의 완료상으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23) a. 쉬는 시간에는 저만치서 힐끗힐끗 훑쳐보기만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몇 명 몰려와 묻는다는 게 고작 전차를 [타][봤는가], 남대문을 보았는가 따위였고, 부러워하거나 감탄한다는 것도 기껏 나만이 가진 고급한 학용품 따위였다.
- b. At the break they stood at a distance stealing quick glances across, and when finally at lunchtime a few

는 계속, 결과, 경험, 그리고 현재와의 관련으로, McCawley(1971. p. 111)는 계속, 결과, 반복, 최근 소식(hot news)이라는 의미로 구분한다.

boys did gather around, it was only to ask, [have] you [been on] a tram, have you seen South Gate, this sort of question.

(23a)에 나타난 사슬동사 [타다]와 [보다]의 사슬동사 [타보다]가 완료상인 have + p.p의 형태로 나타났다.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보조동사 ‘보다’는 앞서 살펴본 예문에서 등장한 보조동사 ‘오다’가 완료상이 지닌 의미 중 하나인 ‘계속’의 의미와 부호화 될 수 있었듯이 완료상이 지닌 또 다른 의미 중 하나인 ‘경험’의 의미와 부호화되어 [have been on]으로 번역되었다.

3.1.2.2. 동사 + 명사로 번역된 경우

다음의 예문은 본동사와 보조동사가 동사 + 명사의 형태로 번역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보조동사는 ‘주다’로 제한되었다. 일반적인 보조동사 ‘주다’가 생략된 반면 아래의 예문들에서는 영어 동사 [give]를 사용한 번역이 이루어졌다. 보조동사로 쓰인 ‘주다’가 생략되었던 앞선 예문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

- (11) a. 무언가를 잠시 생각하더니 아이들을 얽고 있는 마지막 굴레를 [풀어][주었다].
b. After a moment's thought, he [freed] them for the last rein that bound them.¹²⁾

보조동사 ‘주다’가 가진 의미가 ‘봉사’, 즉 수혜임이 확실한 경우는 예문

12) 앞서 제시한 예문을 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시 제시하였다.

(11b)에서처럼 보조동사가 생략된 채 본동사의 의미인 [free]만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보조동사 ‘주다’가 생략되지 않고 ‘give’로 번역된 경우이다.

(26) a. 벌서고 있는 아이의 손바닥을 몇 차례 호되게 [때려][줌]으로써...

b. he [gave] the offender several hard [slaps] across the palms...

(27) a. 기껏해야 달걀을 가져온 아이에게 빙긋 [웃어][준]게 전부였다.

b. The most he did was [give] [a little smile] to the boy who had brought the eggs.

허윤숙(2007)은 ‘주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남에게 넘기는 일, 또는 어떤 이의 소유에서 다른 이의 소유로 대상이 이동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동사 ‘주다’의 의미는 ‘전달’과 ‘혜택’으로 보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전달자(행동주)와 피전달자(수혜자), 그리고 전달체(대상)의 3가지의 논항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예문 (26a)와 (27a)에서는 이러한 3가지 논항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보조동사라기보다는 본동사로서의 ‘주다’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겠다. 이러한 경우 ‘주다’가 생략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한국어 사슬동사 중 보조동사가 V_2 로 나타났을 때의 영어번역 패턴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본동사와 본동사로 구성된 사슬동사의 번역 유형을 알아보기로 한다.

3.2. [본동사 + /-어/ + 본동사]구조의 번역 유형

본동사와 본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가 번역되는 유형을 살펴본 결과 단일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동사+전치사(부사)로 번역되는 경우, 그리고 동사+명사로 번역되는 경우로 나뉘어 나타났으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빈도수와 함께 <표6>으로 나타내었다.

<표6> [본동사 + 본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의 번역패턴과 빈도

본동사+본동사 구조의 사슬동사 번역 패턴		빈도	
단일동사	중심의미의 동사만 번역	29(51.8%)	56(55.5%)
	이동동사의 생략	3(5.3%)	
	제3의 동사로 번역	24(42.9%)	
동사 + 전치사(부사)		39(38.6%)	
동사 + 명사		6(5.9%)	

각각의 번역 유형을 대표하는 예문을 먼저 살펴보자.

- (28) a. 그 무렵 학교에서의 점심시간이나 수업 전과 방과 후의 놀이에도 끼지 못한 나는 교실 창가나 운동장 구석 그늘진 곳에 [붙어][서서] 아이들이 패를 갈라 [뛰][노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고작이었다.
- b. Unable to participate in any of the games, all I did was [stand] at the classroom window or in a shady

corner of the playground and watch sadly from a distance the teams[playing].

(29) a. 석대와 나의 대화가 끝난 뒤에 석대가 도시락을 책상 위로 [올려][놓자]

b. Sokdae [put] his lunch box [up] on the desk.

(30) a. 곁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이상하다는 눈길로 나와 담임 선생님을 힐끗힐끗 [훑쳐][보았다].

b. The other teachers, thinking something strange was going on, [stole] side [glances] at us.

(28)의 예문에서는 사슬동사 안에 나타난 두 개의 동사 중 한 가지만 영어로 번역되었음을 보여주며 (29)예문에서는 위치나 경로를 나타내는 한국어 동사가 전치사(부사)로 번역되어 동사+전치사(부사)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문 (30)에서는 [보다]라는 의미의 한국어 동사가 영어 명사로 번역된 경우를 나타낸다.

<표6>에 나타는 나타난 번역 유형을 더 다양한 예문들과 함께 살펴보자.

3.2.1. 단일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본동사+본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패턴을 살펴보면 단일동사로 번역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일동사로 번역되는 예문들을 종합하여 1)중심이 되는 동작만 번역되는 경우와 2)V₂에 위치한 이동 동사가 생략된 경우, 그리고 3)복합적 의미를 지닌 단일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로 범주화 하였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문들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2.1.1. 중심이 되는 동사만 번역되는 경우

개별적 의미를 가진 $V_1 + V_2$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패턴을 살펴본 결과 단일동사로 번역된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그 중 V_1 만 번역되는 경우, V_2 만 번역되는 경우, 그리고 V_1 과 V_2 라는 두 가지 동사가 합쳐져 하나의 독립적 의미를 지닌 동사로 간주하고 번역된 경우가 있었다. 각각의 경우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31) a. 그 무렵 학교에서의 점심시간이나 수업 전과 방과 후의 놀이에도 끼지 못한 나는 교실 창가나 운동장 구석 그늘진 곳에 [붙어][서서] 아이들이 패를 갈라 [뛰][노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고작이었다.
- b. Unable to participate in any of the games, all I did was [stand] at the classroom window or in a shady corner of the playground and watch sadly from a distance the teams[playing].

위의 예문에서는 [붙다]와 [서다], 그리고 [뛰다]와 [놀다]라는 각각의 동사들이 [붙어서다]와 [뛰놀다]라는 사슬동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어 번역본에서는 V_1 의 자리에 있는 [붙다]와 [뛰다]는 생략된 채 V_2 에 해당하는 [stand]와 [play]로만 번역되었다. 이는 개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두 동사 중에서 문맥상 더 중요한 의미가 되는 동사 하나에 중점을 두고 번역된 경우이다. 구석 그늘진 곳에 [붙어서]가 아니라 구석 그늘진 곳에 [서서]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stand]라는 단일동사로 번역되었고,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바라보는’ 행위가 피동작주의 [뛰는]것이 아니라 [노는]것에 초점

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의미의 무게가 더 무거운 V_2 만 영어로 번역된 것이다. V_2 가 생략되고 V_1 만 번역되는 경우도 같은 이유이다.

- (32) a. 아니나 다를까, 제자리로 돌아온 석대는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들고] 윤병조 앞으로 갔다.
b. As you might expect, Sokdae came back to his place, spent a moment in thought, [took the lighter out] of his pocket and crossed over to Yun Pyongjo.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있는 두 가지 행위 중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낸 행위에 중점을 두고 번역한 것이다. 주머니라는 한 공간 안에 존재하던 라이터라는 물체를 들고 있기 위해서는 먼저 ‘꺼내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선행되는 행위에 의미적인 무게가 더 부여되며 이러한 이유에서 [꺼내다]에 해당하는 V_1 [take out]으로만 번역되었다.

3.2.1.2. 이동 동사가 생략된 경우

한국어 이동 동사인 ‘가다’가 V_2 에 나타났을 때 생략된 채 단일동사로 번역되는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 (33) a. 그사이 수갑을 받은 석대는 두 손으로 피 묻은 입가를 씻으며 비척비척 [끌려][가고] 있었다.
b. Sokdae was being [dragged] away, wiping his bloody mouth with his cuffed hands.

- (34) a. 급장이 부르면 다야? 급장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서]

대령해야 하느냐구?

b. If the monitor calls, is that it? Do we have to [run] to him on call and wait on his commands?

한국어 동사 ‘가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라는 원형 의미를 가진 동사이다. 이동이 이루어지는 수단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 우리말에서는 수단과 이동의 의미를 사슬동사를 통하여 동시에 나타내는 반면, 영어에서는 이동의 의미를 생략 한 채 수단을 나타내는 V₁ 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예문 (33a)와 (34a)에 쓰인 이동 동사와 관련하여 Talmy(2000)는 언어는 움직임에 관한 사건의 의미적 요소들을 융합하는데 있어 다양한 유형적 패턴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움직임 motion을 수단(manner)이나 원인(cause)과 같은 Co-events에 융합시키고 경로(path)는 부수적인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언어이고, 반대로 한국어에서는 움직임을 경로에 융합시키고 수단이나 원인과 같은 Co-events는 따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구분하였다. 즉, 영어의 manner를 나타내는 ‘run’과 ‘drag’의 의미 안에 motion의 의미가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와는 달리 manner를 나타내는 동사 하나로 이동의 의미를 함께 나타내었다¹³⁾.

다음 절에서는 두 개의 본동사의 개별적 의미에 일치하는 동사가 아닌 두 개의 동사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있는 제3의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13)이동 동사와 관련한 Talmy(1985)의 위성 틀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s와 동사 틀 언어Verb-framed languages 이론에 대해서는 3.2.2 동사+전치사(부사) 번역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3.2.1.3. 제3의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

이제까지의 단일동사 유형은 V_1 과 V_2 가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만이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다음 예문은 단일동사로 번역되긴 했으나 사슬동사의 각 요소 중 하나만이 번역된 것이 아니라 V_1 과 V_2 의 두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제3의 동사로 번역된 경우이다.

- (35) a. 나를 데리고 교무실로 들어서서 어머니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담임선생님도 내 기대와는 너무도 멀었다.
b. The teacher in charge, [recognize] my mother as she brought me in, came over to greet us.

(35a)의 예문에서 [알다]와 [보다]의 사슬동사인 [알아보다]가 두 동사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인 [recognize]로 번역되었다. 영어 recognize의 ‘(어떤 사람·사물을 보거나 듣고 누구·무엇인지) 알아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통해 한국어 [알다]와 [보다]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일 동사 [recognize]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유형의 다른 예를 살펴보자.

- (36) a. 그러자 석대가 희미한 웃음을 머금으며 새삼 그 라이터를 이모저모 [뜯어][보았다].
b. He began to [examine] the lighter carefully with new intent.

[뜯다]와 [보다]라는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가 단일 영어단어 [examine]으로 번역되었다. ‘examine’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올바른지, 상태가 좋은지, 수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면밀히 살피는 것’

인데, 어떤 대상을 면밀히 살핀다는 것은 각 요소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뜯어서 살펴본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뜯다]와 [보다]의 사슬동사 [뜯어보다]가 단일동사 [examine]으로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 절에서는 사슬동사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동사 중 하나의 동사가 영어의 전치사 혹은 부사로 번역되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3.2.2. 동사 + 전치사(부사)로 번역되는 경우

동사와 동사가 결합된 구조를 사슬동사라고 하며 우리말에서의 V_1 과 V_2 가 각각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우리말에서처럼 동사와 동사의 번역패턴을 기대하기 쉽다.

(37) a. 석대와 나의 대화가 끝난 뒤에 석대가 도시락을 책상 위로 [올려][놓자]...

b. Sokdae [put] his lunch box [up] on the desk.

(38) a. 눈과 귀를 온통 석대에게만 모아 그의 잘못을 [캐][내]는 일이었다.

b. I directed eyes and ears totally to Sokdae in an effort to [dig] [out] his misdeeds.

하지만 위 (37b)와 (38b)의 예문에서처럼 우리말의 사슬동사가 영어에서의 동사와 부사 혹은 동사와 전치사의 결합으로 번역되는 유형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어떤 종류의 한국어 동사가 어떤 종류의 부사 혹은 전치사로 번역되었는지 분류하고 안과 밖, 앞과 뒤, 위, 그리고 주변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3.2.2.1. in (into)

동사 + 전치사(부사)의 형태로 번역 된 예문들 중 [in] 혹은 [into]로 번역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in] 혹은 [into]로 번역된 경우를 살펴보자.

- (39) a. 반이 어떻게 갈릴지 알 수 없이 준비를 한껏자 5학년이나 되어 갑자기 [흘러][들어온] 내가 그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b. And even if I prepared for the election, someone like me, who had [drifted] [in] suddenly in fifth grade, had little or no chance of winning.
- (40) a. 읽기를 마친 나는 억울하거나 분하기보다는 깊이 모를 허탈에 [빠져][들었다].
b. After I finished reading, I felt more than chagrin or anger; It was as if I had [fallen] [into] a bottomless pit.

예문 (39)과 (40)을 통하여 우리말 동사 [들다]가 [in]이나 [into]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사 '들다'가 가진 원형의미인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에 포함되어 있는 '속이나 안으로'라는 의미를 [in]과 [into]라는 부사 혹은 전치사로 번역한 경우이다.

3.2.2.2. out

다음은 동사 + out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어떤 종류의 한국어 동사가 [out]으로 번역되었는지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자.

- (41) a. 교실을 짹 짹 찌어누르는 듯한 분위기나 아이들의 어둡고 짓 눌린 듯한 표정으로 보아서는 틀림없이 봐 보기만 하면 그의 죄상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도 도무지 마땅한 게 걸리지 않았다.
- b. Judging from the repressive atmosphere in the class and the dark crushed faces of the boys, I figured all I had to do was a little digging and his crimes would all [spill] [out], but I failed to find anything worth talking about.
- (42) a. 그러나 다음날 석대의 말만 듣고 여럿 앞에서 나를 [불러] [내] 매질할 담임 선생과 또 그걸 고소하게 바라볼 석대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런 충동은 이내 잦아들었다.
- b. However, when I thought of being [called] [out] by the teacher and of the beating I would get next day in front of the others after the teacher heard Sokdae's story, and when I imagined Sokdae's gloating face, the urge disappeared on the spot.

마찬가지로 예문에 쓰인 한국어 사슬동사 [나오다]와 [내다]가 부사 [out]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나오다'의 원형의미 '안에서 밖으로 오다'와 '내다'의 기본의미인 '안에서 밖으로 옮기다'에 담겨진 '밖으로'라는 의미가 영어 부사 'out'으로 번역되었다고 하겠다.

3.2.2.3. forward

앞서 한국어 동사 [내다]가 영어 부사 [out]으로 번역된 예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에서는 동일한 한국어 동사 [내다]가 또 다른 영어 부사 [forward]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 (43) a. 그 아침까지도 석대가 보장해주는 특전에 만족해 있던 나 자신을 [내][세울] 수는 더욱 없고...
- b. And I couldn't [put] myself [forward] either—I mean, till that very morning, I had been satisfied with the special favor Sokdae guaranteed.

위 예문에 등장한 [내다]라는 한국어 동사는 영어 부사 [out]과 마찬가지로 방향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동사이다. 하지만 ‘안에서 밖으로’의 의미라기보다는 ‘앞으로’라는 방향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out]이 아닌 [forward]라는 부사로 번역되었다. 또한 위 예문 (43a)에 나타난 V₁ [세우다]가 각각 [put]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나 자신을 세운다는 의미가 ‘쳐져 있던 것이 똑바로 위를 향하여 곧게 되다’라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나 자신을 어떤 위치에 ‘놓아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영어동사 [put]으로 번역되었다고 보겠다.

3.2.2.4. back

‘뒤’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back]으로 번역된 예문들을 살펴보자.

- (44) a. 내가 바쁘게 도시락 뚜껑을 여는데 앞줄에 앉은 아이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b. I had just taken the lid off my lunch box when a boy in the row in front [looked] [back] and said.
- (45) a. 그런데도 내가 그 뒤로도 한참이나 더 싸움을 버텨낸 걸 [돌이켜][보면] 지금에 와서조차 스스로가 대견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b. [Looking] [back] on it, when I think that I carried on the struggle for quite a while even after this, I feel a sense of satisfaction even now.

[돌다]와 [돌이키다]라는 한국어 동사가 영어 부사 [back]으로 번역되었다. [돌다]가 가진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과 [돌이키다]가 가진 ‘지난 일을 다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back]이 가지고 있는 ‘뒤로,’와 ‘과거로 (거슬러), (예)전에’라는 뜻과 각각 일치하여 부사 [back]으로 번역되었다.

3.2.2.5. up

다음은 ‘위’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up]으로 번역된 경우이다.

- (46) a. 석대와 나의 대화가 끝난 뒤에 석대가 도시락을 책상 위로 [올려][놓자]...
 b. Sokdae [put] his lunch box [up] on the desk.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옮기다’라는 원형의미를 가진 [올리다]라는 한국어 동사가 ‘방향 · 이동 · 위치가 위쪽을 향하거나 위쪽에 있음

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사 [up]으로 번역되었다.

3.2.2.6. around

다음은 '주변'의 의미를 가진 부사 [around]로 번역된 경우이다.

- (47) a. 아이들은 쿵쾅거리고 [뛰어][다닐] 쉬는 시간인데도 교실 안은 연구 수업이라도 받고 있는 듯 조용했다.
b. This was a rest period and the boys should have been [romping] [around]. Instead the classroom was as quiet as if they were getting a special demonstration lesson.
- (48) a. 박원하가 잠깐 사방을 [둘러][보더니] 소리를 낮춰 말했다.
b. Pak Wonha [looked] all [around] for a moment and spoke in a low voice.

V₁ 에 나타난 [뛰다]에 해당하는 영어동사 [romp]가 동일한 구조인 동사로 번역되었고, [다니다]에 해당하는 V₂ 는 부사인 [around]로 번역되었다. '이리저리 오고 가고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한국어 동사 '다니다'가 '여기저기, 도처에'라는 부사 [around]로 번역되었다. 마찬가지로 '둘레를 돌다.'라는 의미의 '두르다'라는 한국어 동사도 '사방에(서), 빙 둘러'라는 [around]의 또 다른 의미자질과 부합하여 번역되었다.

위의 예문들을 통하여 V₁ 과 V₂ 중 경로나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 동사가 부사 혹은 전치사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방향이나 경로를 나타내는 동사 사이에 정해진 순서

없이 단지 어떤 행위가 선행 하느냐에 따라 사슬동사의 순서가 달라지지만, 영어에서는 ‘동작 + 방향’이라는 어순이 정해져있다. 이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는 한국어 동사의 위치에 따라 V_1 이 전치사 혹은 부사로 번역되는지 V_2 가 전치사 혹은 부사로 번역되는지가 결정된다. ‘흘러들다’라는 한국어 사슬동사에서 ‘흐르는’ 동작이 선행되어야 ‘들다’라는 방향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흘러들다’라는 순서로 사슬동사가 이루어졌다. 반대로 ‘올려놓다’에서는 올려놓으려고 하는 물체를 우선 위로 향하게 ‘올린 후 ‘놓는’ 동작이 따라오기 때문에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가 선행하여 ‘올려놓다’라는 구조가 되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와는 달리 ‘동작+방향’이라는 구조가 정형화 되어 [drift in]과 [put on]이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된다.

영어의 전치사 혹은 부사로 번역된 들다, 넣다, 올리다, 다니다, 돌다, 내다, 내리다 등의 한국어 동사들은 모두 ‘방향성’이나 ‘경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한국어에서 쓰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왜 영어에서는 동일한 술어 형태가 아닌 다른 요소로 번역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Talmy(1985)의 위성 틀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s)와 동사 틀 언어(verb-framed languages)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Talmy는 이동 사건의 개념구조를 5가지 의미적 구성성분인 이동(motion), 전경(figure), 배경(ground), 수단(manner), 경로(path)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로(path)와 이동 사건이 어떤 요소로 나타나는지가 동사 + 전치사(부사)로 번역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동사건에서 중요한 틀을 차지하고 있는 경로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경로 자체를 동사로 나타내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동사가 아닌 다른 요소로 표현하는 경우이다. 한국어가 바로 첫 번째 경우인 경로 자체를 동사로 나타내는 언어에 속한다. 이 때문에 ‘들다, 넣다, 올리

다, 다니다, 돌다, 내다, 내리다'등의 경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동사 형태로 나타났다. 반대로 영어는 두 번째 경우인 경로를 동사가 아닌 다른 요소로 표현하는 언어에 속하는데 '들다, 넣다, 올리다, 다니다, 돌다, 내다, 내리다'의 한국어 동사가 'in, into, out, forward, back'등의 전치사 혹은 부사라는 다른 요소로 번역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¹⁴⁾

3.2.3. 동사 + 명사로 번역된 경우

[V₁ + /-어/ + V₂]구조의 사물동사가 동사 + 명사의 구조로 번역된 경우는 V₂에 쓰인 동사가 '보다'인 경우로 제한된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49) a. 곁에 있던 다른 선생님들이 이상하다는 눈길로 나와 담임 선생님을 힐끗힐끗 [훑쳐][보았다].
 b. The other teachers, thinking something strange was going on, [stole] side [glances] at us.
- (50) a. 담임 선생이 힐끗 나를 [쏘아][보더니] 그래도 확인한답시고 다시 윤병조를 불렀다.
 b. The teacher [shot] an angry [glance] at me, but to confirm the information he called Yun Pyongjo.

'동사+명사'의 번역패턴을 보인 6개의 예문들 중 모두 한국어 동사 V₂ '보다'가 영어 명사형으로 번역되었다. 영어 명사형으로 번역된 경우가 '보

14) '보다'라는 동사는 이동 동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보다'와 함께 쓰인 동사들이 '돌다'와 '올리다,' '내리다'등이 경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며 이 또한 '위성틀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s)'와 '동사틀 언어(verb-framed languages)' 이론을 통하여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겠다.

다'라는 동사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각 예문들이 가진 규칙성을 찾기 위하여 통사론적, 의미론적 접근을 해보았으나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추후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하고 번역 패턴을 찾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영어번역물인 Kevin O'Rourke의 *Our Twisted Hero*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한국어 사슬동사가 영어로 번역되는 패턴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사슬동사의 구성에 따라 번역 유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첫 번째로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의 구성과 두 번째로 개별의미를 지닌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의 구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동사와 보조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의 구성에서는 우선 연구 자료에 나타난 보조동사들의 종류와 빈도수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슬동사들이 영어로 번역된 패턴과 그 빈도수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크게 보조동사가 생략된 채 선행동사 V_1 만이 영어로 번역된 경우와 보조동사가 번역된 경우로 나뉘었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98회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보조동사가 번역된 경우 완료상 have + p.p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가 9회, 그리고 동사와 명사의 형태로 번역된 경우가 2회로 나타났다.

한국어 보조동사의 특징상 선행동사를 보조해 주는 역할로서 쓰인 V_2 들이 대부분 영어에서는 번역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지만, 뒤 따르는 번역 패턴을 통해 한국어 보조동사가 생략되지 않고 영어로 번역된 경우들도 발견되었다. 첫 번째로 '계속'의 의미와 '경험'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오다', '가다', '보다'의 경우 각 보조동사가 가진 의미자질과 부합하는 완료상 have + p.p의 형태로 번역된 경우이고, 그 다음 V_1 에 해당하는 본동사가 영어의 명사 형태로 번역되고 V_2 자리의 보조동사가 영어동사 'give'로 번역된 경우였다.

다음으로 개별 의미를 지닌 두 동사로 이루어진 사슬동사 구조의 번역패

턴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단일동사로 번역된 경우가 56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동사+전치사(부사)가 39회, 동사+명사가 6회로 번역되어 나타났다.

단일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를 다시 중심이 되는 동작만 번역되는 경우와 V_2 에 위치한 이동 동사가 생략된 경우, 그리고 복합적 의미를 지닌 제3의 동사로 번역되는 경우로 범주화 하였다.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이동 동사로 나타난 V_2 가 생략된 채 수단을 나타내는 V_1 만이 번역된 경우를 Talmy의 motion verb에 관한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동사 + 전치사(부사)로 번역되는 경우도 매우 흥미로웠다. ‘들다’, ‘내다’, ‘올리다’, ‘돌다’등의 한국어 경로 동사가 영어 전치사 혹은 부사 ‘in(into)’, ‘out’, ‘forward’, ‘up’, ‘back’등으로 번역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이를 위성 틀 언어(satellite framed language)와 동사 틀 언어(verb framed language) 이론을 통하여 한국어에서는 경로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 동사로 이루어 지지만 영어에서는 전치사나 부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동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번역 패턴에서는 V_2 에 나타난 한국어 동사 ‘보다’가 영어의 명사 형태로 번역된 경우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규칙성을 찾고자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연구 대상으로 남겨놓았다.

분석 자료가 이문열(1992)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하 ‘영웅’으로 약함)과 그 영역본 Kevin O’Rourke(2007)의 *Our Twisted Hero* (이하 ‘Hero’로 약함)로 제한되어 있어 한 명의 번역가의 번역 유형만을 분석하여 일반화 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주제인 사슬동사의 영어 번역 유형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의 영어 학습, 특히 사슬동사의 한영 번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분 석 자 료

- 이문열. 1992.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서울: 민음사.
Yi, Munyol. 2001. *Our Twisted Hero* (Kevin O'Rourke, Trans.).
서울: 민음사.

참 고 문 헌

- 강현화. 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김기혁. 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김용석. 1983. 한국어 보조동사 연구. 『배달말』 8, 1-33.
남기심·고영근. 1993.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이관규. 1986. 국어 보조동사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
이승녕. 1956. 『고등국어문법』. 서울: 탑출판사.
이영현. 1996. 한국어 사슬동사의 몇 가지 특성. 『언어』 21(4), 1137-1157.
이정은. 2007.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이동동사 습득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이희승. 1955. 국어의 상 체계와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 『국어학』 38.
최태호. 1991. 『중학말본3』. 서울: 탑출판사.
최현배.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1971.
허윤숙. 2007. 『‘주다’의 의미-기능적 변화』. 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

어학회

- Im, Sung-chul. 2002. *Typological patterns of motion verbs in Korean*.
『Discourse and Cognition』 9(1), 123-150.
- Kim, Jong-bok and Yang, Jae-hyung. 2003. Parsing Complex Predicate
in the Korean LKB System. 『한국언어정보학회 2003학술대회 발
표논문집』 .
- Lee, Sook-hee. 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 Talmy, Leonard. 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Language Typology and Semantic Description,
Vol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Timothy
Shopen (ed), 36-1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Massachusetts: MIT Press.
- Yang, In-seok. 1978, *Pragmatics of Going-Coming Compound Verbs in
Korean*, i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 South Carolina: Hornbeam P.